

종합·해설

# “盧정부 초 남북정상회담 성사 직전 무산 됐다”



## DJ “국민의 정부때도 러서 3자회담 제안”

교동 자택에서 사전 녹음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있으며, 또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노무현 정권이 시작했을 때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 일단 합의가 돼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얘기가 거의 다 됐다가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데에는 미국이 변수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깊이는 못 물어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러시아 이르쿠츠크 남·북·러 정상회담 제안을 받았던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르쿠츠크에서 하지 말고)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으로 내려와야 한다, 서울에 오지 못하면 제주도나 휴전선 가까이라도 와서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거절해서 진전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이용 비판에 대해 “과거 남북정상회담 때도 북한 측이 곧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차라리 안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선거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시절 아파트 상한가 폐지 및 카드 납탈 정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이든 허물은 있지만 후임 정권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임무이며, 자신은 전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정계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몇 달 더 지켜보면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지금은 춘추전국시대이지만 결국엔 양당체제로 가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부터 국민이 밤잠 안자고 전화하고 인터넷 해서 당선시켜주니까 바로 갈라선 것이 국민의 뜻이고는 다른 것이었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해 여론을 납득했다.

이 인터뷰는 5일 오전 7시15분부터 8시까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3·4부에서 방송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일 오후 열린우리당 여수갑 기초당원대회 참석차 여수를 방문한 김근태 의장이 당원대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회에서 최근 정치상황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4일 광주 무등산 중심사 법회에 참석한 뒤 스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일해공원 명칭 동문서답 해서야”

### 여수 방문 김근태 의장, 이명박 비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 명칭 변경에 대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일해 바다(日海)’를 의미하냐’고 동문서답한 것은 정치지도자가 민감한 현안을 회피한 것이고 광주 5·18 영령들에게 뭐라고 할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여수갑 기초당원 대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이 시장의 지지도가 상승한다는 소식이 솔직히 당혹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이 전 시장이 최근 국가 예산 20조 절감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작년 예산결산사시 왜 한나라당에 이를 요청하지 않았나 모르겠다”며 “시비가 될 수 있

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며 복안 안이 있으면 훗날 밝혀질 것이고 이는 ‘구태정치’의 부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 최근 연이은 소속의 원의 탈당과 관련, “중앙위원회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토론 결과를 무시하고 탈당을 하는 것은 ‘비신사적 행위’라며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무질서하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오는 14일 전당대회와 관련 “전당대회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정 임기가 종료되는 날인 동시에 생일인 만큼 당원들이 좋은 선물을 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권창출 위해 ‘통합정치’ 필요”

### 광주 온 손학규 전 지사 정운찬씨 영입 거둬 제안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4일 “한나라당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여권측 인사로 거론되는 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영입을 거듭 제안했다.

손 전 지사는 전날 밤 순천의 한 사찰에서 1박을 한 뒤 이날 오전 광주 무등산 중심사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해 “정권을 창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개혁과 개방을 통한 자 개혁과 통합을 이루는 세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현봉 전 송광사 주지스님과 박재순 전남도당위원장 등 불교·문화계 인사 30여명과 무등산을 등반하고 의재미술관과 춘설현, 치평동 무각사 등을 방문한 뒤 오후 춘남 서천으로 이동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현봉 전 송광사 주지스님과 박재순 전남도당위원장 등 불교·문화계 인사 30여명과 무등산을 등반하고 의재미술관과 춘설현, 치평동 무각사 등을 방문한 뒤 오후 춘남 서천으로 이동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현봉 전 송광사 주지스님과 박재순 전남도당위원장 등 불교·문화계 인사 30여명과 무등산을 등반하고 의재미술관과 춘설현, 치평동 무각사 등을 방문한 뒤 오후 춘남 서천으로 이동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나라 정체성·이념 논쟁 가열

## 원희룡 “수구보수 탈당·색깔론 해명을”

## 김용갑 “정체성 토론 참여할 생각 없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정체성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념 공세’의 타깃인 원희룡, 고진화 의원이 지도부 책임론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당내 정체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원 의원은 4일 연합뉴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은 당헌·당규와 정당정책에 잘 나타나 있다”면서 “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사람은 발전적 보수를 주장하는 이들이 아니라 수구보수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과거의 부정적 유산을 불태우고 당헌과 정당정책을 부인, 훼손하는 수구보수들은 당을 떠나 수구

보수 정당을 창당하든지 아니면 당헌과 정당정책을 지키려 노력하라”면서 최근 정체성 문제를 들어 자신에게 대선후보 경선 포기를 종용한 김용갑 의원에 대해 사실상 탈당을 촉구했다.

고진화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벌어진 색깔론, 지역주의, 불공정 시비에 대해 당 지도부의 명확한 해명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당의 자의적 경선후보 선정 ▲최고위원회의 석상의 불공정 경선 조작 발언 ▲유석준 본부장의 색깔론 제기 및 특정후보 탈당 중용

▲특정 대선주자를 겨냥한 색깔론 제기과 불출마 요구 ▲당 경선준비위원회 위원 선정 등 ‘5대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했다. 그는 이와 관련, “당 지도부의 조사와 해명이 미진할 경우 윤리위원회 제소는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두 대선주자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 김용갑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해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거듭 비난하면서 “정체성 논란과 관련한 토론에 내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 같다”면서 “지도부로서는 근속스럽지만 건전한 토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與탈당 ‘부동산 입법’에 불뚱?

## 건교위 여당의원 절반 탈당 예정 민간 원가공개 대부분 비토그림

이번 중증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린우리당의 집단탈당 사태로 인해 1·11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에 대해 적신호가 켜졌다.

부동산입법의 소관 상임위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당위원의 절반 가량이 이번 집단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위위원장 조일현 의원과 건교위 여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강경 탈당파로 분류된다. 박상돈 장정수 홍재형 사재관 의원은 이미 탈당에 서명했고 정장선 의원은 잔류와 탈당의 경계선상에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주 중 집단탈당이 결행될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건교위원 12명의 절반 이상이 무더기로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뀌고 건교위내 여당의 입지

는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탈당과 건교위 의원들이 1·11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 이번 대책의 하이라이트인 민간부담 원가공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탈당과 거의 대부분이 ‘비토’ 입장이다.

의명을 요구한 탈당과 의원은 “1·11 대책은 여당 건교위원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된 것 당의 부동산대책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것 아니냐”며 “정부·여당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추진하는 ‘거수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승용 의원은 “민간부담의 원가공개는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정책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여당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부동산 후속 입법은 순항을 기약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제1야당이 한나라당이 원가공개에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여당 탈당파들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집단 비토할 경우 입법은 물 건너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탈당파는 여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과시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부동산 대책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주 의원은 “집단 탈당에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확실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행사할 것”이라며 “우리의 협조 없이 여당 뜻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EBS교육방송 저자직강 출제위원급 최고 교수진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전국수석 배출 본원출신 승은영님 96.7점

2월 1일 첫진도 개강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1위 합격률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수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2월 1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 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 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 (농성동)

**국비훈련생 모집** 전액무료

모집직종 정보통신설비

모집기간 2007년 1월 16일부터(30명 정원 한도내 선착순 모집)

취득자격 정보통신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모집대상 - 대한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이과대학생(포함) 이과대학원·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실업자 - 취업보호대상자 - 비전향장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母子보호대상자 - 장애인 - 일반주부(3개월제에 구직등록한 주부) - 수강료 전액 무료 - 교재 무료 제공 - 교통비 지급(매월 50,000원 → 6개월 총 300,000원) - 우선선정직종수당 지급(매월 200,000원 → 6개월 총 1,200,000원) -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관련분야 100% 취업

모집방법 학교교무실 상담 및 방문(건강보험카드 지참)

문의전화 224-4560, 224-4580

버스노선 - 전남여고 동선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무인81, 518 - 문화전당역(구 도청) 전일07, 칠대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풍암61, 문흥80, 두원82, 518, 1187 - 예술의거리 입구 풍일07, 금남56, 대촌70, 대촌70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224-4560, 224-4580

★위치: 전남여고건-편 김여규종합학원 내 ★http://www.hdedu.co.kr

국가직/ 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무료문제풀이** 개강 2월 1일 = 야간반 진행 =

100% 출석시, 수강료100% 환불 • 문제풀이 수강료 : 100,000원

**김중규 행정학문제풀이 특강** 300명 선착순 접수, 수강료 60,000원, (개강: 2007년 4월 9일(목), 4월 12일(목) 16:00~22:20), 교수 김중규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www.kjkimyong.com.kr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성공신화는 계속된다

**2008년 현업시험 대비반 개강(기초과정)** = 개강 : 2월 1일 =

**김윤신 초등교육고정** 개강 2월 1일(목)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2월 1일

개설과목: 영어/영어추론/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김영대학면임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7-0088